

이태준 작품 연구

-성격형상화에 치중한 작품을 중심으로-

申 順 澈

〈目 次〉

- | | |
|----------------|---------------|
| I. 예비적 고찰 | 2. 노인 성격의 형상화 |
| II. 성격 중심의 작품들 | 3. 순박한 인물의 창조 |
| 1. 여성상의 창조 | III. 결 론 |

I. 예비적 고찰

이태준은 1930년대 소설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작가이다.¹⁾ 그러나 월북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간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행해져 온 경향이 있다.²⁾ 그러나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으로 그에 대한

- 1) 그 내용은 대개 ‘단편소설의 완성자’, ‘순수파의 기수’, ‘문장가’ 등이다.

김환태, 「상허의 작품과 그 예술관」, 『개벽』, 1934. 12.

최재서, 「단편 작가로서의 이태준」,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pp. 435-438.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pp. 239-24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p. 364-370 등의 소론 참조.

- 2) 그 내용은 대개 그의 문학이 감상적이며 사상성이 낮고, 패배주의적이라는 점이다.

방준원, 「이태준론」 『백민』, 1946. 10.

김종빈, 「墓穴을 自請한 이태준-복덕방, 촌뜨기를 중심으로 한 素描」, 『동아춘추』, 1963. 4.

김 현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p. 199-200 등의 소론 참조.

관심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그의 문학적 성과를 선입견 없이 살펴 보고 그의 문학적 공과와 문학사적 위치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1904년 철원에서 태어났다.³⁾ 그러나 개화파에 속해 있었던 그의 부친이 의병에게 쫓겨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가는 바람에 온 가족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 부친은 그것에서 한을 품은 채 이태준이 6살 때에 세상을 뜨고 만다. 가장을 잃게 된 그의 집은 귀국의 길을 떠나지만 모친의 해산으로 배기미(梨津)의 素淸거리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서 이태준은 서당을 다니며 잠시나마 그의 일생 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행복한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세 남매는 고아가 된다. 그들은 다시 철원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이태준은 뼈저린 고아체험을 갖게 된다. 私立 봉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자 그는 고향을 떠나 고학의 길을 찾아 간다.

1918년, 15살 때, 그는 원산에서 사환 노릇을 하며 공부할 기회를 보았으나, 여의치 못해서 다시 그곳을 나와 만주 안동현 등지를 방랑하다 서울에 와서 1921년 휘문고보에 입학하게 된다. 고학을 하는 그는 성적은 좋은 편이었으나 출석 상황은 나쁜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휘문고보 시절에 많은 문학 서적을 탐독하고 그의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교지 「徽文」 제2호 발간시에 문예부장으로 활동한 점이라든가, 그 책에 가람 이병기 선생 選의 기행문 1등상 수상 작품과 감상문 2등상 수상 작품을 비롯한 총 6편의 그의 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맹휴교의 주모자로 몰려 1924년 6월, 5년 과정 중 4학년 1학기에 퇴학을 당하고 만다.

3) 이하 그의 전기적 고찰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의 수필집 『無序錄』(이태준문학전집 제15권, 서음출판사, 1988), 그의 자전적 소설 『思想의 月夜』(위의 전집 제5권), 민충환의 『이태준 연구』, (깊은샘 출판사, 1988) 등을 따랐다.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동경까지는 가나, 가난과 고독과 병에 시달리다가 上智大 文科를 중퇴하고 귀국의 길에 오른다. 귀국 후 그는 구직난에 시달리다가 1928년 겨우 「開闢」사에 입사하고 「학생」, 「신생」의 편집에도 관여하게 된다.⁴⁾ 그 다음 해부터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는 작가의 길로 들어 서게 된다. 결혼도 하고 신문소설도 쓰고, 전문학교에 작문 강사도 나가도 해서 생활의 안정도 얻는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는 모든 사회의 체제를 戰時體制로 바꾸고 병참기지화 정책과 皇民化 정책을 두 축으로 하여 우리의 문화와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193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나, 중일전쟁 이후 그 정도가 극에 달한다.⁵⁾ 문인에 대한 시국 협력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의 자유 나아가 언어의 보존마저 위협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태준은 1939년 2월부터 문장을 주재(主宰)하면서 문단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져 가지만 일제의 압력 또한 비례적으로 가중되어 갔다. 그러면서 이태준도 어느 정도 궤절의 길을 걷는다. 친일적인 글들⁶⁾과 조선문인협회 조선문인보국회의 관여 등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그는 일말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 1943년 장편 『왕자호동』을 끝으로 절필하고 고향으로 칩거한다.

지금까지 그의 삶과 시대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의 생애의 한 특색은 그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입신의지를 강화시킨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그러한 입신에의 절실함은 그에게 시대적인 모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휘문고보 시절

4) 장편 『第二の運命』(漢城圖書出版部, 1937. 6)의 책머리에 실린 그의 略傳 참조.

5) 강제언, 『일제하 40년사』, 풀빛, 1984, pp. 100-124 참조.

6) 「지원병 훈련소의 一日」, 『문장』, 1940. 11, pp. 126-129.

『大東亞戰記』, 이무영과 공역, 인문사, 1943.

「목포조선현지기행」, 『新時代』, 1944. 6 등 참조.

에 보였던 동맹휴교 주동과 같은 행동이 대사회적이나 대일본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입신적 전술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그리고 본고에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비록 어릴 때 부친을 여의었으나 부친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며 그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⁸⁾ 그의 부친은 개화사상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앞서서 단발을 하였으며 새로운 문물을 일으키려 노력했다. 이러한 아버지를 그는 韓末志士로 인식하여 존경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은 고전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고취미는 조선적인 것의 말살의 위기에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만나면서 조국상실의 공백을 메꾸는 정신적 대체물이 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고전적인 것에 대한 강한 경도는 “근대주의 곧 식민지 체제라는 등식에 대항하기 위한 자각적 방법론적 命題인 것”⁹⁾이다. 이것이 작품세계로 반영된 것이 그의 “성격 형상화에 치중한 작품들”인 것이다. 이것을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 보자.

7)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한 그의 “사건 구성에 치중한 작품군”과 그의 해방 이후의 정치적 행적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함.

8) 이에 대하여는 “...저것이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 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가 참먹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 없다.(...)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古翫』, 『無序錄』 앞의 책, p. 246.)에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음.

9)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p. 174.

II. 성격 중심의 작품들

그는 소설에서(특히 단편소설) 성격 형상화를 그 무엇보다도 중시한 작가이다. 그가 성격형상화에 이렇게 관심과 의미를 부여한 것은 소설의 근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한숙은 근대소설의 특징을 인물중심이라 하였다.¹⁰⁾ 그의 대부분의 단편은 성격 중심이라 할 수 있다.

短篇이란 小說形態 中에서 人物表現을 가장 經濟的이게, 斷片的이게 하는 者라 생각하면 고만이다.¹¹⁾

나는 사건보다 인물을 쓰기에 좀 더 노력하는데¹²⁾

인간상을 描出하는데 李泰俊만큼 明確한 手腕을 갖인 作家도 드물겠다.¹³⁾

氏의 老人에 對한 描寫와 對話는 아마 다른 作家의 따르지 못할 魅力이 있고 現代女性의 心理 等도 如于獨特한 것이 아니랴.¹⁴⁾

그는 소설 속에서 인물을 형상화하여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자체와 나아가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이태준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시 사회가 너무 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도 강한 활동성이 없음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인물 현상화 그 자체에 탐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10)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대출판부, 1973, p. 49 참조.

11) 이태준, 「短篇과 掌篇」, 『이태준문학전집』 제17권, p. 277. 이하 「전집」으로 표기함.

12) 이태준 「창작의 고심」 『전집』 제17권, p. 254.

13)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p. 176.

14) 丁來東, 三大新聞長篇小說論評, 『개벽』, 1935. 2, p. 5.

1. 여성상의 창조

여성상을 형상화한 것을 자세히 다시 나누면 자유분방한, 생기발랄한 여성상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五夢女」, 「恩姬夫妻」 등, 자아의식, 삶의 주체성 자각의 여인상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결혼」, 「코스모스 이야기」 장편 「성모」, 이태준이 이상으로 보는 여인상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누이」, 「석양」 등이 있다.

① 자유분방한 여성상

「五夢女」는 그의 처녀작으로, 함경북도 북단의 바닷가 마을에서 지참봉이란 늙은 봉사와 함께 사는 五夢女라는 여인이 남순사와 지참봉을 물리치고 금돌과 먼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¹⁵⁾

우선 五夢女의 외양 묘사를 살펴 보자.

그러나 五夢女는 그와 正反對로 나뉘어 차갈수록 살아 오르고, 둥그스름한 그의 얼굴은 허어멀거코도 두 뺨에는 늘 血色이 배여 잇섯다. 美人이라는 것 보다 거저 투실투실하고 福스러운 계집이라고 할지? 그러나 이 족오마한 드뭇거리에선, 一色인체 꼬리를 치기에는 넉넉하였다.¹⁶⁾

인물의 외양 묘사는 간략하다. 본래 생긴 것은 뛰어나다고 할 점이 없으나 벽지라고 하는 환경이 그를 자유분방하고 발랄하게 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그 성격이 형상화되고 있다.

그녀를 돈으로 사와서 아내로 삼은 지참봉이 봉사인 데다가, 생활이 극도로 궁핍했으므로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버릇이 되었으나 죄책감이 전혀 없다.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성격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五夢女는 자신의 생일

15) 이 작품은 발표 당시의 원작과 뒤의 개작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원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뒤 개작 부분과 대조해 보도록 하겠다.

16) 「五夢女」, 현대일보, 1925. 7. 13, 민중환, 앞의 책, p. 205-206 재인용.

에 쓸 생선을 장만하려고 총각 금돌의 배에 몰래 들어가 생선과 백합을 훔치다가 금돌에게 들키게 된다. 금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五夢女를 범하려 한다. “五夢女는 避하려 하지도 안코 오히려 約束이나 한 愛人을 만난 것가티 그가 하라는 대로 머리를 들어 흐릿한 海上月色을 살펴 보았다.”¹⁷⁾

그리고 남순사가 客報 안한 것을 트집잡아 그녀를 주재소 숙직실에 유인해도 그녀는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 나올 때에 남순사에게서 일원짜리 두 장을 받아들고는 그 이전에 있던 방순사에게 당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가벼운 기쁨을 느끼기까지 할 정도이다. 그 후로는 남순사에게도 가끔 가곤한다. 그것을 눈치 챈 금돌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五夢女를 배에 태워 무인도로 가버린다.

五夢女가 없어진 동안 남순사는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고 五夢女를 찾아 독차지하려고 지참봉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후 집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린다.

어느 날 五夢女가 다시 나타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속으론 딴 생각이 있으면서도 남순사에게 살림을 차릴 것을 약속하고 山東紬 이부자리를 자기 집으로 옮겨 놓은 후 남순사의 처가 해산을 하여 들어 오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이부자리를 비롯한 살림살이를 배에 싣고 海蔘威(블라디보스톡)을 향하여 떠난다.

五夢女는 시종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 준다. 기존의 제도나 성윤리에 억매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뿐이다. 그녀가 결국은 금돌과 함께 희망의 땅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제도 윤리관념을 떠나서 이상향으로 향하고자 하는 작가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서 원작과 개작과의 차이점을 살펴 보자.

우선 개작에서는 사건의 전개가 五夢女의 성격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17) 위의 책, p. 208.

사건으로 축소되어 촛점이 좀더 선명하게 되었다. 즉, 원작에 있던 房巡査와의 관련 부분은 완전히 빠졌으며, 방순사와 남순사의 횡포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거나 약하게 서술되었고, 남순사가 지참봉을 속이는 계략 (객보 안한 죄로 벌금 백원을 물린다든가, 다른 객주집은 영업폐지를 시키고 지참봉만 하게 해 준다든가)과 남순사가 지참봉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는 장면과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 지참봉의 집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부분도 개작부분에서는 빠져 있다.

이렇게 五夢女와 직접 관련이 없이 이야기의 진행이나 흥미를 보충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五夢女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구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표현은, 원작이 매우 노골적이고 에로틱(?)한 데 비하여 개작은 예리하고 강렬한 감이 떨어진다. 다음의 예에서 그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1-가] 「오늘 자주엔 金匱이레 고대할게구마……」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다가, 땀뻑한 속옷까지 다 벗어내 팽개치고, 잠이 들었다. 五夢女가 옷을 다 벗고 자기나, 제법 山東紬 이부자리에 늘어져 보기도 처음이다.

五夢女가 잠이 든지 三十分이 못 되어서다. 자는 五夢女의 입술에는 무엇이 선듯하고 다했다. 經驗있는 五夢女는 잠깁이라도 그것이 수염난 사내의 입술임을 意識하였다. 그리고 눈을 비쩍 또는다. 그러나 불은 꺼진채로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옷벗는 소리가 난다. 五夢女는 놀래면서도 慙慙히 하는듯이 房밖에서는 들리지 안흐리만큼 나른 소리로

「앙이, 어느 나그대신등?」

「내꼬마……쉬쉬……」 이것은 完全히 南巡査의 목소리였다.

[1-나] 「오는 나주엔 금돌이레 고대할게구마……」

오몽내는 뒤송송한대로 얼마만에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다. 오몽내는 무엇인가 입술에 선뜻함을 느끼었다. 불은 꺼진채로 완연히 찬 기운이 끼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내랑이……쉬이……」

남순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2-가] 그 거리위 靑年들이 매사냥을 하다가 매를 노치었는데 매가 東으로 갔느냐 西로 갔느냐 占치려온 군들이었다. 南巡査는 돼스구나 하고 골방門을 살그머니 여니까 五夢女의 팔이 나오드니 南巡査의 팔을 이끌어 들이고 문을 닫는다.

[2-나] 매가 동으로 갔느니 서으로 갔느니 하고 지참봉은 매를 날리 버린 사냥꾼들과 점을 치고 있었다. 남순사는 숨을 죽이며 정지를 지나 정지 옷방으로 갔다. 오몽내는 마침 집에 있었다.

이처럼 표현면에서는 개작에서 오히려 五夢女의 성격 묘사가 분명치 못하게 되고 말았다. 구성면에서 방순사와의 관련 부분이 삭제된 것도 구성의 통일성을 이루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면에서는 五夢女의 성격형상화의 약화를 가져 온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것은 이태준의 성에 대한 관념이 보수적으로 기우는 변화가 있었거나,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원작에서의 강렬함을 수용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이 작품은 개작을 통하여 문학적 구성의 간밀성과 통일성은 가지게 되었으나, 성격묘사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五夢女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많이 약화되거나 은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태준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처녀작이란 이유 이외엔 별로 애착을 두지 않은 것 같다.¹⁸⁾ 개작을 통하여 성격형상화가 후퇴하면서 그의 주제의식도 후퇴함은 물론이다. 성을 매개로 하여 표현된 현실의 제도나 제약에 대한 생기 발랄한 생의 의지나 이상향에 대한 강한 동경 그리고 일제의 강점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 등이 약화 된 것이다.

「恩姬夫妻」는 ‘나’가 은희라는 여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가운데, 그녀

18) 1939. 12.에 간행된 『李泰俊短篇選』에 이 작품을 개작하여 실으면서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아 놓았다. “이 作品은 오직 나의 處女作이란 愛着에서 여기 걸은다. 모델 小說이 아닌 것, 여기 나오는 現實도 지금은 卅五年 前 옛날임을 말해 둔다.”

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밝혀 본 작품이다. 은희의 성격은 외양 묘사는 전혀 없이 주로 ‘나’가 관찰한 행동을 통해서 형상화된다(여기서 촛점화자는 은희이고, 작중화자는 나이다.).

은희는 ‘나’와 두 번째 만날 때부터 둘만의 비밀을 품게 될 정도로 적극적인 여자이다. 어느 겨울, ‘나’와 만날 약속을 하고도 고향 친구 가 찾아 와서 “남산이나 한바퀴 돌고 오자”고 하여 마침 눈과 달빛이 좋아 허락하였다가 늦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려 약속을 깨뜨리는 즉흥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편지를 통하여 안 ‘나’는 즉각 절교를 결심, 오는 편지를 모두 돌려 보낸다(나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 자존심 높은 성격을 유의). 그러나 은희는 마지막 엽서에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 어리오”라고 하여 자신이 자유분방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가엾고 유치하게 여긴다.

4년 후 어느 날, 느닷없이 그의 남편과 함께 방문하겠다는 편지가 온다. 다른 볼 일은 없이 오직 ‘나’의 방에서 하루밤을 묵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듯한데 그들의 행동이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즉, 남편이란 사람이 먼저 아랫목에 눕고 은희와 나를 같이 자도록 하며, “은희도 서슴치 않고 웃옷을 활활 벗더니 두 팔과 두 다리와 젖가슴이, 그냥 들어나는 속옷 바람으로 큰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불섶을 제끼며 “어서 드러오세요”라고 한다. 그 다음 날 “틈있는 대로 자기네 집을 다녀 가라고 신신당부하며”¹⁹⁾ 恩姬夫妻는 유쾌하게 떠나간다.

이러한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행동에 ‘나’는 “비관이 막연하”기도 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기도 하다. 정말 “은희를 사랑하기에 너머 유치했었는지도 모른다”고 자탄하기도 한다. 철저히 기존의 윤리의식과 통념에 빠져 있는 나를 비웃듯이 은희부처는 유유히 떠나간 것이다. 당시

19) 「恩姬夫妻」, 『新小説』, 1930. 5, pp. 124-5. 민중환, 앞의 책, p. 231. 『전집』, 제1권, p. 86-87. 재인용.

일어나기 시작한 자유분방한 연애관 성관념을 한 여성을 통해 성격으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태준은 연애에 대한 자유분방한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삶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갖는 여성상

「結婚」(1931. 4. 6.)은 S라는 여학생이 ‘재상의 자식’, ‘황주서 제일 가는 부자’, ‘의학박사 켄틀맨’을 다 물리치고 학위도 재산도 없는 T라는 청년과 결혼하여 겪는 생활고와 그로 인한 의지적 갈등과 그 극복을 다룬 작품이다.

T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건강을 들 수 있고 예술적 정열을 말할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직 문명(文名)도 나지 못한 한개 문학 청년에 불과 하지마는 T자신은 오직 그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히 살려는 변민과 그 노력이 있을 뿐이니 결혼에 들어서 학위를 말하고 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야 이따위는 서툰자리 값에도 나갈리가 없을 것이다.²⁰⁾

이러한 T를 S만은 가장 자랑스럽고 멋있고 영예롭고 고귀하게 생각한다. “S는 돈이나 명예에 끌리어 사랑을 허락하는 것은 마치 매음이나 하는 것처럼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S는 당시 식민지 치하에서의 부귀와 명예란 오히려 비열한 것이라는 매우 예리하고 투철한 역사 인식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조선사람들과 같이 인격적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굴리고 사는 비열한 생활자들이 어대 있으랴 하늘을 싸덮은 검은 구름썩 같은 거대한 굴욕 아래에서 누가 명예를 가진 자이며 누가 부귀를 가진 자이나²¹⁾

그들은 “바람같은 거짓에 배불리지 말자”는 공통의 신념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러나 결혼은 “돈이라면 침을 뱉던 S에게 돈욕심에 눈을

20) 『전집』, 제1권, p. 105.

21) 위의 책, p. 106.

뜨게”한다. 돈이 없어 친정살이를 하며 S와 T는 돈의 위력에 괴로워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과 지조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T는 그가 경멸하던 ‘관청’에 취직하는 문제를 S와 상의하게 되는데 S는 무언의 찬동을 한다. T는 처참한 실망을 나타낸다.

예배당에 가서 S는 T의 처참한 얼굴을 되새겨 보며 괴로와 한다.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서양 사람의 깔금한 모습과 조선 사람의 비통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다. 서양 사람들이 저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가사만을 그대로 번역하여 외우고 섰을 때는 아니라는 민족적 현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결혼으로 인하여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S는 T가 관청입사 수락전보를 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진실히 살려는 노력과 번민”을 되찾는다.

여기에서 “진실히 산다”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임은 그 작품에 나타난 암시적인 표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의 발전과 형상화의 각성의 계기가 너무 안이하고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구조적인 형상화가 되지 못한 관계로 감동은 별로 주지 못하고 주장만이 강하게 드러난 약점이 있다. 인물의 성격도 이념과 사상만으로 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실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작가가 자의적으로 만든 인물일 뿐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태준의 사회의식을 가진 인물형상화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 행동과 사건은 안이하며 평이한 것이며 주로 작중화자의 해설을 통하여 성격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이태준 자신이 결혼한 직후에 쓰여진 점을 미루어 볼 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결혼생활에서 모든 아내 적어도 자신의 아내가 이런 S와 같은 인물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작품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성격형상화를 통한 주제의 표현면에서는 秀作이라 할 수 없으나 작품 속에 나타난 민족의식, 역사의식은 높이 살 만하다.

「코스모스 이야기」(1932. 10)는 학교 안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고 심덕이 곱다는 명옥이 시집가서 다시 시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많은 곳으로부터 명옥에게 청혼이 들어오지마는 명옥은 친구 현정자의 오빠 현홍구를 마음 속에 품고 있다. 그러나 현정자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현홍구와의 연락도 끊어진다. 명옥은 “현홍구처럼 존경하는 사나이가 아닌 것만은 유감이라도 흠은 없는 신랑”에게 시집가서, 남녀 하인이 굶질거리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나 무언가 공허를 느끼는 데, 하인의 자식 하나가 약도 한 첩 못 써보고 죽는 일을 당하고 코스모스가 비옥한 땅에서 자라면 키만 자라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생활을 비판해 본다.

그는 종일 생각하였다.

‘코스모스’의 행복은 꽃이 피는데 있으리라, 비옥한 땅에서 키만 자라고 죽는데 있지 않고 거츠른 땅에 나서라도 꽃이 피어 보는데 코스모스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도 그럴 것이다.²²⁾

결국 그녀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시집의 호강을 내버린다. 그리고 현홍구를 찾는다. 현홍구는 가난한 것은 물론, 숨어 다니는 처지였다. 명옥은 현홍구에게 훌륭한 직업과 지위를 주지 않는 사회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그나마 그는 경찰에게 잡히어 옥에 갇힌 지 넉 달만에 윗병으로 죽는다. 명옥은 매우 슬펐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큰 용기와 힘을 얻고 현홍구의 시체를 찾으러 간다.

‘아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복되게 살도록 마련해 주셨다. 현홍구의 운명,

22) 위의 책, 제1권, p.184.

이 사회의 운명을 지배한 자는 하느님의 자비까지 유린한 자다. 그는 무엇인가? 귀신인가?’

명옥은 한 참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리 다. ‘현홍구의 운명, 이 사회의 운명을 지배한 것은 사람이다. ! 사람의 짓이다.’ (四行略)

명옥은 큰 용기를 얻었다. 시집을 벗어나서는 새와 같이 날아갈듯한 경쾌를 느끼었으나 이번에는 바위를 들고 산을 떠돌고 일어 서는 기중기(起重機)와 같은 저력을 느낀 것이다.²³⁾

작품 내용 중 ‘四行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명옥의 삶에 대한 자각이 당대의 시대상황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비옥한 땅에서 살 수도 있으나 가치있는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거즈른 땅’을 택하여 이 땅을 황폐하게 한 이가 누구인가를 곰곰 생각해 본다. 그 결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였을까는 알기 어렵다. 그것은 일제의 검열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쨌든 주인공은 자기 일신을 뛰어넘는 사회를 문제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 작품도 앞의 「결혼」처럼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실천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뛰어난 점이 있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 발전의 계기가 안이하고 피상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명옥의 자각에 근본적 계기를 제공하는 현홍구를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도 현홍구가 고학을 하면서도 성적이 좋다는 점,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 하는 자립심, 그것도 동생인 현정자를 통하여 듣는 정도이다. 서로의 사상과 포부를 말해 보는 기회도 없다. 현정자의 일로 현홍구가 명옥의 집에 왔을 때에도 명옥은 그의 어머니 뒤에서 그를 훑쳐 볼 뿐이다. 그때의 첫 인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홍구는 명옥이가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루답게 숙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데 어딘지 ‘홍구야’ ‘명옥아’하고 서로 작난하고 놀고 싶은 연년한 애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명옥이에게 명랑하고 다정한 첫인상을 주었다.²⁴⁾

23) 민충환, 앞의 책, pp. 268-269.

이러한 사춘기 소년 소녀 정도의 인상을 주고 받은 정도에서 명옥은 시집을 가게 된다. 그리고 하인 자식의 죽음과 코스모스 이야기를 계기로 시집에서 뛰쳐 나와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굳게 가진다는 얘기다. 지극히 비약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자각을 갖는 인물을 통하여 그의 민족적 역사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주제는 작품형상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옥의 민족적 현실인식이 집중적으로 서술된 뒷부분(명옥이 시집을 나와 현흥구를 찾아 가는 부분)이 개작 (단편집 『달밤』, 1934. 7. 수록)에서는 완전 삭제됨으로써 주제의식마저 더욱 약해져 버린다.

장편 『聖母』의 안순모도 여기에 속하는 인물이다. 순모는 시골서 올라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여학생이다. 같은 고향 학생인 상철과 사랑에 빠지게 되나, 상철을 좋아하는 덕인이라는 여학생의 적극성으로 상철이 덕인과 같이 지내게 되자, 상철의 친구인 미술학도 정현에게 가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현마저 윤부전이란 여자 미술연구생과 함께 동경으로 가버리고 순모는 홀로 남게 된다. 순모는 사생아인 철진을 낳는다. 순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철진을 훌륭히 키워 고보까지 보낸다. 철진에게 조선어의 중요성을 통해 민족의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이 얼빠진 녀석아, 말과 글이 그 민중의 최후의 재산이요, 최후의 목숨인 줄 모르니? 아모리 기술에나 학문에 학박사가 되문 뭇허니? 그 사람이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풍속, 우리례절, 우리 감정에 서툴르면 그 사람은 세계의 학자는 될가 그러나 조선의 학자는 아니다. 이러케 말하면 내 속이 쭈은 것 가트나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어떤 학자나 기술자나 사상가가 나기보단 조선의 학자, 조선의 기술자, 조선의 사상가가 나길 어떻게 아쉽게 바라는데 그러니? 내가 영얼 압만 잘해두 먼저 조선말, 조선글, 조선감정에 서툴러선 조선으루 볼땐 아모것두 아니다.²⁴⁾

24) 『전집』, 제1권, p. 179.

25) 『전집』, 제7권, p. 425.

아들에게 거는 기대에 있어서도 순모는 일신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의 형편 가터서는 철진이가 관립대학이나 온건한 모범학생으로 졸업해 가지고, 월급 만흔 자리에 취직이나 되어 자기의 말년을 밋들어 준다면 제일 조젯지만 순모로선, 제일 리상적인 어머니, 제일 현명한 조선의 어머니가 되리란 큰 포부를 품은 순모로선 그런 조고마한 자기 일개인의 안락을 위해 창공을 날으려는 대붕과 가튼 젊은 아들의 압길을, 아니 한개 조선 청년의 압길을 막을 리가 업섯다.²⁶⁾

그러므로 철진이 비밀결사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되어 북경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를 격려하고 엄숙히 훈계함은 물론 쌀값으로 돈 돈 십원까지 주어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철진의 애인인 옥경과 함께 살기로 하고 편물을 배우러 가면서 다음가 같이 다짐한다.

우린 작구 일군을 길러내야 한다. 선수를 길러내 넓은 무대로 보내야 한다.....²⁷⁾

통속적인 연애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지만 작가의 주제는 주인공 안순모의 성격형상화에 나타나 있으므로 성격 중심의 작품에 넣을 수 있다. 안순모가 거둬되는 연애에 실패하여 홀로 사생아를 키워야 하는 불운에 빠지게 되지만은 아이를 훌륭히 키워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사명감을 깨달음으로써 그의 인식의 수준은 민족과 역사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식의 발전과 확대의 계기는 구체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하고 비약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태준의 민족적 역사적 각성을 보여 주는 작품은 그 주제의식이 성격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작가의

26) 위의 책, p. 427.

27) 위의 책, p. 448.

자의에 따라 갑자기 志士나 關土로 변모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이태준의 역사관, 민족의식이 구체적이고 신념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심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③ 이태준이 이상형으로 보는 여성상

다음으로는 이태준이 이상형으로 생각한 여인상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누이」와 「석양」이 해당된다.

「누이」(1929. 6)는 ‘나’가 바로 이웃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의 무질서한 생활과 그 여인의 육감적인 자극을 못이겨 집을 나와 공동묘지 근처를 산책하다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性的 충동에 사로잡혀있는 ‘나’는 그 여자를 보자 “다짜고짜로 들이 덤비어 손목을 붙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상 외로 침착하고 반항도 없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건넨다. 그 여자는 삶의 모진 풍파를 모두 겪고 난 뒤 진정으로 사랑과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심 전심으로 그 여자의 괴로움과 고독을 공감하게 되고 누이와 같은 한없는 위안과 푸근함을 느낀다.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더구나 그는 남자와도 달라 한창 피려는 봉오리가 벌써 세상물결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가라앉으려는가. 내 가슴은 더욱 찢릿하였다. 우리는 비록 하는 말은 없었다 할지라도 예서 더한 통사정과 위안이 어디 있으랴. 나에게 대한 그의 침착하고도 반항 없던 태도의 수수께끼도 이 침묵 가운데서 나는 풀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저도 이제부터는 외로운 사람들의 편이 되겠어요.²⁹⁾

「누이」의 누이는 이태준이 고아로 서럽게 살아왔던 슬픔과 외로움을 투영해 주는 매체로 그의 마음을 위안해 주는 여성상이라 볼 수 있다.

28) 『전집』, 제1권, pp. 71-72.

29) 위의 책, p. 72.

「夕陽」(1942. 4)은 노경에 접어든 매현이란 작가가 경주에 가서 타옥이란 젊은 여인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야기를 매우 낭만적이면서도 허무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타옥이란 여인은 매우 천진무구한 자유분방함과 예술적 안목 그리고 종교적 철학적 깊이를 아울러 지닌 거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녀는 외양 묘사에서부터 육감과 지성미와 청순함을 다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다음은 매현이 이 여인을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다.

물그릇을 쟁반에 받혀 들고 나타나는 것은 소년이 아니라 웬 소녀다. 미목이 청수한테 매현은 놀랐다. 맑으면서도 가느스름한 눈매와 두볼진 볼록한 턱이 고요하고 침착한 인상을 준다.

“물이 꽤 차군!”

“우물에서 새로 떴어요.”

오랫말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서건 키서건 소녀는 아니다. 흰바탕에 초록나무잎이 들성들성 찍힌 수수한 원·피츠로 우아래가 설명하니 드러났다. 빛에 약간 끌기는 했으나 알마치 부른 팔과 다리엔 잠깐 본 동작이나 꽤 세련된 ‘도회’가 풍기는 처녀다. 매현은 반가웠다.³⁰⁾

이러한 외양 묘사로 인한 여인의 성격은 토기와 재기에 대하여 한두마디 던지는 언어에 의해 더욱 깊이를 더해 간다. 그러면서도 타옥이 봉분의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행동에선 상식을 뛰어 넘는 天真의 자유분방함이 신비로움을 자아내기까지 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그것은 극도에 이른다.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닥쳤다. 솔밭이 끝나자 강변이다. 처녀는 아직껏 둘이의 대화는 무시해버리듯 돌아다보지도 않고 이글이글 닳은 모세 우로 파라솔도 집어든채 뛰어 나가는 것이다. 매현은 어쩔줄 몰라 다시 소나무 그늘로 드러섰다. 그리고 또 차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자괴 눈씨의 의혹이 생기었다. 그 소녀는 결코 아닌, 더구나 교양으로는 어느 어른의 경지보다도 높은 그 처녀가 그리 멀리도 가지 않아 있는 웅맹이 앞에서 기탄없이 웃을 활활

30) 『전집』, 제2권, p. 208.

떨어버리는 것이다. 반짝이는 모새 우에 푸른 먼 산을 배경으로 한순간 상큼 서보는 나체, 그 신비한 곡선들의 오능 속에서 뛰어나온 요정(妖精)이 아니고 무엇이라! 탐방 탐방……물은 빗긴 햇빛에 금쪽으로 뛰었다.

“넋지 않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소리다. 매현은 천재(天才)와 천치(天痔)는 일치된다는 말을 생각했으나 이 처녀를 천치로 없수역일 수는 없다. 어슬렁 어슬렁 그 다음 웅덩이로 내려가 땀을 씻고 다시 올라 왔을 때는, 처녀는 옷을 입고 파라솔을 받고 발판 맨발로 무슨 곡조인지 나직한 노래를 부르며 어정 어정 걷고 있었다.³¹⁾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천상의 완벽한 여인을 관념적으로 창조해 놓고 그와 함께 정신적 외도를 하고 있는 이태준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그의 의식은 현실에서 한참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모리 고흔 여자라도 정말 숭고한 미란, 종교를, 또는 철학을 체득하지 않고는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깨달았다. 매현은 타옥을 불렀다. 십일면 관을 앞에 가즈런히 세웠다. 십일면 관음의 도독한 손등을 쓰다듬고 그 손으로 역시 도독한 타옥의 손을 쓰다듬었다. 지천명(知天命)이 내일 모레인 자기의 그 집요한 샅된 정욕을 만나는 일순에 돈망경(頓忘境)에 빠트려 놓는 타옥도 역시 자기에겐 숭고한 영원의 여상이었다.³²⁾

이 작품의 말미에는 타옥과 해운대까지 같이 갔으나 그녀는 그녀의 약혼남을 마중하기 위해 몰래 매현의 곁을 떠나간다.

따라서 「夕陽」의 타옥은 꺼리낌 없는 자유분방함과 예술적 교감, 그리고 영적(靈的)인 親交로 이태준이 그리는 이상형의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

以上에서 이태준은 「누이」에서의 누이와 「夕陽」에서의 타옥을 통해 그가 그리는 理想型의 여인상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31) 위의 책, p. 214.

32) 위의 책, p. 225.

2. 노인 성격의 형상화

이태준은 노인의 성격을 치밀하고 정감있게 형상화하여 남다른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다. 이제는 영락하여 초라하게 되어버리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며 스러져가는 인물에 대한 그의 동정과 연민을 보여주는 이 세계는 그의 동양적 체관과 조선적 애수 尙古 취미 골동 취미 등과 곧바로 통하는 세계인 것이다. 노인의 성격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익장의 성격으로 「不遇先生」, 「寧越令監」, 「(아담의 後裔)?」, 쓸쓸한 노경과 죽음에의 인식 등을 다룬 「어둠」(뒤에 「愚菴老人」으로 개제), 「북덕방」 등이 있다.

「不遇先生」(1932. 4)은 여관에 묵고 있는 ‘나’가 어느 저녁 때 찾아온 奇人 老人, 송선생과 몇 번 만나며 보고 겪은 것을 통해 노인의 성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선 송선생의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 형상화를 보자.

과연 그 손님은 목소리만은 점잖스러웠다. 의복이 초췌해 그렇지 신수도 좀 스티럽거나 막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후주근한 모시주위에 땀고모자는 삼년상을 그 모자로만 치르는지 먼지가 떡게로 앉고 배헌걸조차 땀에 얼룩이 가져 있었다. 뒷돌 우에 벗어 놓았다 가 다시 집어 퇴마루 우에 올려 놓는 신발도 그리 대단스럽지는 못한 누르통통한 고무신이었다.³³⁾

주로 관찰자 ‘나’의 해설과 송선생의 차림새를 통하여 송선생의 성격과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암시되어 있다. 겉보기는 초라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거를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과거는 그가 글을 “청성스럽게 잘 읽는”다든가, 조선, 일본, 중국의 현 정세와 현대사상 문제의 여러 가지를 밤이 깊도록 떠버리는 점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십여년 전만 하여도 천여석 추수를 받아 먹고 살던 귀인”이었는데 “그 재

33) 『전집』, 제1권, pp. 150-151.

산이 한말(韓末) 풍운 속에서 하루밤 꿈처럼 얻은 것이라 불순한 재물인 것을 깨닫던 날부터는 물 퍼내 버리듯 하였다.” 한 때 시대일보의 중요 간부였었고 최근에는 중외일보의 산파역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만두고 나와서 신문사의 간부들이 “전날의 기상들이 없어지고 무슨 은행이나 기업회사의 중역처럼 아니꼬움 부리는 것이 메스꺼워 찾아가지 않”고 자신을 알아 주는 동지를 만나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 다닌다. 동지를 만나면 “백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요즘”의 신문사가 아닌 참된 신문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진 인물이다. 세속적인 영리와 명예에 타협하지 않고 청빈함과 지조를 지켜 가려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식구가 여섯이나 있는 집안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음은 물론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적 무능력 혹은 대범함이 그의 기인적 풍모를 더해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인적 풍모를 연출하는 결정적인 소도구는 ‘이상한 칼’이다.

그 칼은 이상한 칼이었다. 철물전에 가면 혹 그 비슷한 것은 있어도 그와 똑같은 것은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어찌 생긴 칼이고 하니 칼은 칼모양으로 되었는데 칼만 달린 것이 아니라 병마개 빼는 것, 국먹기 조흔 움푹한 수가락, 서양사람들이 저가락 대신으로 쓰는 사시창까지 달린 칼이었다.

그는 수가락을 잡아뽑고 사시창을 잡아뽑고 하더니 한끝으로 밥과 국을 떠먹고 한 끝으론 김치쪽을 찢어 먹는데, 저가락을 들었다 노앗다 하는 이보다 더 빨리 더 편리하게 먹었다. 그리고 오이지가 긴것이 있으니까 칼날까지 열어 져기더니 송덩송덩 썰어가면서 먹었다. 그 칼은 그에게 없지 못할 무기 같았다.³⁴⁾

이 칼은 그가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의 포부를 펴 볼 만한 시기와 장소를 찾지 못하고 기약없는 방랑을 해야 하는 ‘不遇先生’임을 단 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인 것이다.

34) 『三千里』, 1932. 4, p. 635.

결국 그는 밥값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난다. 그 뒤 ‘나’는 삼청동 골짜기에서 벌거벗고 옷을 빨아 넣고 꾸김살을 펴고 있는 不遇先生을 만난다. 그의 기이한 풍모는 더욱 드러나게 되지만 그의 가족은 집에서 마저 쫓겨나고 말았다는 그의 무능력도 함께 드러난다. 세 번째 만난 것은 길거리에서다. 가뜩이나 초췌한 행색이 더욱 상해 있었다. 그간 그는 전차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 수술을 하는 고역을 겪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그의 낙관적인 태도도 약간 꺾인 듯했다. 그러나 극동정세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의 눈은 다시 광채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참이나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는 종로 쪽으로 사라진다. 머리를 수술하는 고생을 겪고도 그의 기인적인 의기는 죽지 않는다. 이태준은 정신적인 거인을 갈망했는지 모른다(『서글픈 이야기』에 나오는 강군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거대한 비실제적 인물이 세속적인 소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서글픔을 느꼈다는 내용의 작품인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한 번 살아봐라 그래야 세상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이다). 그러나 노인에게서 그러한 거대한 비실제적 성격을 형상화하려고 한 점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전편에 깔려 있는 작가의 작중인물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무엇인가? 현실에서 찾아 보기 힘든 굵직한 지조를 가진 인물에 대한 경외감과 한편의 안스러움이 아닐까?

이 작품은 발표 당시의 원작과 개작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도 노인성격 형상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문의 첫 부분의 1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개작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는 이 부분이 不遇先生과 여관 주인 마누라와 수작하는 부분으로 여관 주인 마누라의 성격형상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不遇先生의 성격형상화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타당한 조치라 생각된다.

그 다음 끝부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즉 원작에서는 不遇先生의 “그런데 요즘 일중문제는 꽤 주의를 끌지요 맹랑하게 전개되거든……”이란 말에 대하여 ‘나’와 한참이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개작에서는 ‘나’가 “글세요 저는 그런 방면엔 문외한이올시다.”³⁵⁾라고 시국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 말을 받아 불우선생이 오히려 “그럴리가 있소 저렇게 발랄한 청년시기에……”라고 하여 청년의 소극성과 무기력함을 질책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발랄함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작함으로써 인하여 나의 성격은 훨씬 미미해지면서 불우선생의 노익장한 정렬과 의기가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끝부분에서, 원작은 불우선생이 먼저 “난 종노로 가오”하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데 비해서, 개작에서는 “허! 아무대로나 가지오 어서 먼저 가시오”하고는 ‘나’가 전차길로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원작이 끝까지 당찬 포부와 의기를 잃지 않고 있음에 비해 개작에선 약간 맥이 빠진 공허한 상태로 끝이 나고 있어 지금까지 형상화되던 성격이 갑자기 흐지부지 무너져버리는 듯하다.

『寧越令監』(1939. 2. 3)도 ‘寧越令監’이라 불리는 집안의 한 어른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성익 앞에 나타나서 세상을 뜰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寧越令監이란 노인의 성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선 외양 묘사와 작가의 해설을 통해 단편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자.

젊어 영월(寧越) 고을을 지내어 영월댁이라 영월 영감 아저씨, 영월 하라버지로 불리어지는 인데, 키가 훗칠하고, 이글이글 타는 눈방울이 늘 술취한 사람처럼 화기된 얼굴에서 번뜩일뿐 아니라 음성이 행길에서 들드라도 찌렁찌렁 울이는 태가 있는 어른이어서, 영월 하라버지 오신다 하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었다. 위엄은 아이들이나 하인배에뿐 아니라 그분과 동년배요 항렬로

35) 『달밤』, 1934. 7, p. 16.

는 도리어 우이 되는 이라도 영월 영감이 오는 눈치면 으레 물었던 담뱃대를 뽑아 들고 길을 비키었다.³⁶⁾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과 혈기가 당당한 인물이다. 지조도 대단하여 일제 치하가 된 이후엔 “세도가 정상시가 아닌 때에 득세(得勢)를 하는 것은 소인잡배의 무리라 하고, 읍에 한번 가는 일이 없이 온전히 출입을 끊”기도 인물이다. 그러다가 “기미년 일에 사오년 동안 옥사생활을” 하기도 하여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미년 이후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듯, 논발을 팔고 집터와 종중(宗中)의 위토(位土)까지 잡혀 경향 각지로 잦은 출입을 한다. 무슨 권세나 이권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사로이 나간 것이 무릇 십오륙년간 소식이 끊겼다. 그런데 “문득 찢어진 지우산과 지까다비로” 성익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까지 작가의 해설로 단편적인 성격형상화가 압축되어 서술되고 구체적인 성격형상화는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 이뤄진다.

십오륙년이나 지난 뒤에 나타난 寧越令監은 자연적인 노화는 어쩔 수 없는 듯, 주름들이 탄력을 잃고 머리와 수염이 반넘어 희어졌으나, 아직도 음성이 높은 것, 눈에서 푸른 안정이 쏘아 나오는 것, “상에서 설익은 갈비를 다시 구어울것도 없게 실패꼭처럼 벗겨 자시는것” 등이 예전의 정정한 기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寧越令監은 성익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말고 돈 천원쯤을 변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성익은 “십여년만에 찾는 조카에게 자기 개인 밥값 같은 것이나 궁해서 돈 말을 할 영월 아저씨로는 믿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장하던 골동품을 몇 점 팔아 칠백원을 만들어 드린다. 寧越令監은 성익의 이러한 處士趣味를 못마땅해 한다. 그러면서 “문명으루, 도회지루,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루 자꾸 나가야 돼”라고 진취적인 의기를 보인다.

36) 『文章』, 1939. 2, p. 94.

다시 일년이 지난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달려가 “광산에서 다치셨대요”라는 간호부의 말을 듣고야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다. 병원에 누워서도 寧越令監은 금광사업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집념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자신이 기동을 할 수 없으니 성익에게 광산에 가서 그간 나온 돌을 한 가지씩 가져 오라고 시킨다. 성익이 그대로 질이 좀 나은 회색 차돌 몇 덩이를 싸들고 병원으로 가니 寧越令監은 패혈증이 발병해 사경에 빠져 있다. 유언이라도 들어 두라는 의사의 마지막 선고를 듣고 성익은 종로에 있는 어떤 광산사무소에 가서 억지로 우겨서 “노다기” 한 덩어리를 산다. 영월영감은 그것이 자기가 경영하는 광산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눈을 감는다. 죽는 순간까지 젊은 사람을 오히려 능가하는 노익장의 정렬과 의기가 넘치는 寧越令監의 성격이 외양묘사와 행동을 통하여 잘 형상화되었다. 이것은 앞의 「不遇先生」의 성격과 거의 같은 인물성격이다. 특히 성익이 寧越令監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며 회상하는 寧越令監의 탄식 “서른 둘! 호랑이 같은 때로구나! 왜들 가만히들 있니?”라는 구절은 「不遇先生」에서 不遇先生이 ‘나’의 시국에 대한 무관심을 은근히 탓하는 대목에서 “그럴리가 있소 거렇게 발랄한 청년시기에……”라고 한 구절과 같은 뜻으로 작품의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의 중심 인물인 노인의 성격은 약간의 과장까지 써서 적극적인 의기를 강하게 형상화시킨 데 비하여, 관찰자이고 서술자인 젊은이의 성격은 매우 나약하게 (성익의 경우 젊은 나이에 골동품 애호의 처사취미에 빠져 있다든가, 노다지를 사다가 채굴된 것이라 속이는 허위의식을 드러낸다고든가 하는 점, 「不遇先生」에서의 나는 성격형상화가 거의 없음.) 그림으로써 이태준은 자신을 포함하는 당시의 젊은 세대가 무기력과 소심증에 빠져 있는 것을 비판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태준이 임옥인의 작품을 추천하면서, “나는 조선 작품들에서 이런 강력의 生活者를 보고 싶어하는 者”라고 한 것이 이러한 의식의 한 면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무기력하고 쓸쓸한 노경을 맞아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있다.

「어둠」(1934. 11. 뒤에 「愚菴老人」으로 개제)은 위 아랫니가 모두 빠지는 불길한 꿈을 꾸고 난 뒤,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절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내용을 다룬 짙막한 작품이다. 원이 넘어 소설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로 “말년에 이르러 인간낙을 새로”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 노경에 여러 가지 우울함과 죽음에 앞서 큰 짐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한다. 병들어 있는 아들, 소설과 큰마누라 등의 이승의 식구들 걱정, 그러나 이제는 이승보다는 죽음과 더욱 가까와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다. 거대한 어둠이 마치 자신을 잡으러 온 짐승인양 한 걸음 덥석 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다. 노인은 한 점 불빛을 그리워하여 성냥갑을 찾는다.

불길한 꿈이 아들의 병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함으로 연결되고,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그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으로 투사되면서 자연스럽게 빛의 갈망으로 이어지는, 짜임새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격형상화보다는 죽음에 맞서는 노인의 심리와 어둠과 빛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원작의 제목이 「어둠」으로 된 것은 작품의 비유적 의미를 통한 죽음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 개제한 「愚菴老人」은 노인의 심리에 더욱 비중이 두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작품 내용상의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제목을 바꾸는 데 있어 작가의 의도가 인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자 했음을 주목함으로써 그의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데 참고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또 노인의 이름에 있어서도 원작에 “海石老人”이던 것이 개작에서 “愚菴老人”으로 바뀐 것도 전자가 어의와 음감에서 강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반면 후자는 부드럽고 노숙한 느낌을 주므로 후자가 작품의 분위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福德房」(1937. 3)은 이태준의 대표작이며 그 스스로도 아끼는 작품

이다. 「福德房」은 복덕방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안초시, 서참위, 박영감의 세 노인의 쓸쓸한 노경과 몰락을 그린 작품이다. 이들에 대한 뛰어난 성격형상화와 동정적 태도는 이태준의 조선적 애수를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 안초시의 성격을 살펴보자.

안초시는 “얹고 잔망스런 손”을 가지고 있으며 “소매 끝을 불고 손 끝으로 투겨 보기”를 잘하고 “늘 눈이 달리고 뽀르퉁한 입으로는 말끝마다 쟁쟁 소리만 나”오는, 생긴 것과 행동이 잔망스러운 인물이다.

“종보야, 술 한잔 사 주라!”

종보라는 말이 자기를 업수녀기는 것 같아서 안초시는 이내 발끈해 가지고, “네깃놈 술 더러 안 먹는다.”

“화토패나 밤낮 때면 너이 어머이 살아 온다텐?”

하고 서참위가 발끝으로 화톳장을 밀어 던지면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새근 새근 하다가 부채면 부채, 담배갑이면 담배갑, 자기의 것을 냉큼 집어들고 안 올듯이 새침해 나가 버리는 것이다.

“조게 계집이문 천생 남의 침 감이야”하고 서참위는 껄껄 웃어 버리나 안초시는 이렇게 돼서 올라 가면 한 이틀식 보이지 않았다.³⁷⁾

안초시의 성격이 서참위 (민충환, 앞의 책, p.172에 ‘참의’와 ‘참위’의 판명에 대한 고찰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랐음)의 성격과 대조되어 선명히 형상화된 부분이다. 안초시는 남의 멸시를 너그럽게 넘길 만한 도량이 체질적으로 없는 인물인 데다가 그의 빈한해진 처지는 더욱 그런 것에 민감하도록 만들고 있다. 서참위의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집 거간이나 해 먹는 서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다고 하는 꿈하는 자존심을 굳게 간직하고 있다. ‘초시’란 명칭으로 보아 양반의 집안인 듯은 하나 분명치 않고, 그는 십 수년을 상업계에서 지내면서 괜찮은 때도 가졌었지만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고 이제는 딸에게서 용돈 타서

37) 『전집』, 제2권, p.89.

쓰는 처량한 신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여 오직 돈을 한 번 벌여 돈으로 이 세상에 뛰어 들어 보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와 대조적인 인물로 서참위가 등장한다. 안초시가 “얹고 잔망스런 손”을 가진 데 비해 서참위는 “투박한 손”을 가졌으며, 안초시가 몰락 양반이나 상업계의 출신이라면 그는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이킬제는 한번 호령만 하거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전집 제2권, p. 87)의 무인(武人) 출신이다. “합병 이후에는 다섯 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었고 이제는 “한날 가궤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갈보 따위가 사글셋방 한칸을 얻어 달래도 네 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서참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감회는 고물 팔라며 지나가는 예전의 同官 김참위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고 더욱 깊어지기도 하나 전에 혈기 있을 때와는 달라 그런 기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안초시와 마찬가지로 좋았던 지난 날에 대한 悲感을 가슴 깊이 갖고 있지만 안초시가 경제적 사업면에서 실패하여 상처 입은 자존심만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는 반면, 서참위는 “지난 일 그까짓 생각할 건 뭐 있나”하고 활달하게 털어 버리고 복덕방업으로 마련한 생활 기반에 만족하며 낙천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조적인 성격으로 서로 성미가 맞지 않아 악의 없는 말다툼이 잦다.

이 두 인물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면서 안초시의 몰락을 가져 오게 하여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박희완 영감이다. 앞의 두 인물에 비하면, 외양보사라든가 前歷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행동 등이 별로 없어 두드러진 성격형상화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박희완 영감도 대서업이라도 해 보기 위해 “독본 뚜껑이 손 때에 찢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바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 때까지 새까맣게 찢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된 속수 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서 삼국지 읽던 투로 일어를 외

우고 있는 영감이다. 모두가 자신의 나이와 만족에 걸맞는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삶의 근거를 잃은 군상이다.

박희완 영감은 황해 연안의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안초시에게 알려 준다. 안초시는 솔깃한다. 그리고 “여간해선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딸에게 돈 300원을 변통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詐欺였다. 박영감부터 속았던 것이다. 안영감은 이로 인하여 첫 무서리가 내린 날 약을 먹고 자살을 한다.

안초시의 딸은 인정도 없이 名利만을 따지는 인물이다. 부박한 속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건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노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 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 다닌다 하노라고, 더구나 구창계만 아는 이 애미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³⁸⁾ 것으로 생각한다. 사쓰 한 벌 사달라고 해도 겨울이 다 지나도록 사 주기는 커녕 “안경 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일 원만 달래도 일원짜리를 구지 바꿔다가 오십전 한 잎만 주었다.” 안초시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도 官에 알려져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만을 제일 신경 쓴다.

서참위의 강력한 요구로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른다. 분향을 하면서 서참위는 죽어서야 대접을 받는 안초시의 신세를 “흥……자네 참 호살쎄 호사야……잘 죽었느니 자네 살었으문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³⁹⁾라고 반어적으로 절규한다. 서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묘지까지 따라 가려 했으나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 않고 도로 술집으로 내려 오고 만다.

작가는 “안초시를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로 구체화된 당시의 젊은 세대의 이해타산적인

38) 『진집』, 제2권, p. 91.

39) 『진집』, 제2권, p. 100.

풍조에 비웃음과 경멸의 태도를 보이고, 이제는 무대의 전면에서 퇴장해야 하는 지나간 세대들이 겪는 비애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심리적인 태도는 안초시와 서참위와 박영감이 서로 다른 과거와 성격을 가졌음에도 공통적으로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몰락하고 이제는 과거의 기개만을 그리워하는 쓸쓸한 노경을 안경화로 대표되는 부박한 젊은 세대, 새로운 것의 이기적인 몰인정, 허식과의 대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태준은 등장 인물의 성격형상화를 통하여 그의 주제를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노인들은 몰락한 조선의 모든 것을, 안경화는 일제 세력에 편승하여 성장하고 있는 신흥 친일세력의 세태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은 일제 하의 몰락 조선의 비애를 성격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아담의 후예」(1933. 9)는 딸을 기다리는 안영감이 원산 항구의 장터에서 이력저럭 살아가는데 자선가인 B 서양 부인의 눈에 띄어 그의 집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곳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안영감은 본래 그리 적빈하지 않았고 고기 장사 할멈의 아들 편지도 읽어줄 정도로 글자도 배웠다. 그러나 “딸 하나 있는 것을 데릴사위를 드렸더니 그것도 자기 팔자 소관인지 딸이 사내를 땀으지 않고 다라났다.”⁴⁰⁾ 청진 쪽으로 가서 술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는 편지가 있기는 했으나 그 후 삼사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의탁할 곳이 없어진 안영감은 걸어서라도 딸을 찾아 청진까지 가 보려고 하던 것이 원산에 와서, 딸이 배로 돌아 오지 않을까 해서 두 해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에서의 생활이 전연 무미한 것은 아니라서 장터의 후한 인심이라든가, 말광대 구경, 낚시질 구경으로 “딸의 생각도 그리 아쉬운 것은 아닐” 정도로 재미를 붙이며 살아간다. 어느 날 자기도 낚시질을 하고 싶어 낚시대를 훔치다가 소란이 났는데 마침 자선가인 B 서양부인의 눈에 띄어 위기를 모면하고 B

40) 『전집』, 제1권, p. 211.

부인의 장래 양로원이 될 임시 함석집에 수용된다. 처음엔 “이제야 팔자를 고치나 보다”하고 좋아 하였으나 까다로운 규칙에 염증을 느껴 그 곳을 탈출하게 된다.

안영감의 성격 형상화는 주로 언어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비록 변변치 않으나마 과거에 가졌던 삶의 기반을 잃어 버리고 객지에서 거지처럼 지내는 ‘터전 잃은’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안영감의 명명(命名, Appellation)에서이다.

안영감은 성이 안가는 아니었다. 어느 떡장사 마누라가 한번은 쉼 떡을 그에게 먹이면서 그의 사정을 듣고, 안변(安邊)에서 왔다고 해서 ‘안변영감’이라 한 것이 귀에 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라 되는데로 ‘안영감’이라 불려진 것이었다.⁴¹⁾

안영감은 자신의 이름마저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비천한 신세이다. 그러나 작가는 안영감이 작품 속에서 낙천적이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어떤때 장사 마누라들이 먹을 것을 주어 놓고 저이끼린 동정하는 말로,
“불쌍한 늙은이랑이……”

혹은,

“늙어서 고생하면 젊어서 죽는이만 못하당이……”

하고 지꺼리면 안영감은 화가 버럭 치밀어 가만이 놓을 그릇도 멩그렁 소리가 나게 내여 던지었다.⁴²⁾

어떤 때는 혹시 뉘집 부엌에서 고기국물이나 얻어 마시고 나서면서는 흐릿하게나마 ‘딸에게 얹혀 살면 이런 부자집처럼 고기국이야 먹여 줄라구’하는 생각, ‘못다락이 먹던 떡찌꺼기나 남의 집 음식이니까 맛이 있지’하는 생각이 좀처럼 그를 비판하게는 하지 않았다.⁴³⁾

41) 『신동아』, 1933. 9, p. 177.

42) 『전집』, 제1권, p. 211.

43) 위의 책, p. 212.

거기애다가 대치인 원산 여기저기를 다니며 싸움 구경, 불 구경, 말광대 구경, 낚시질 구경, 담배 껌부기 주워 모으기, 철로길을 따라 걸으며 차주전자나 병 줍기 등으로 세월 가는 줄도 모른다. 그가 B 서양부인의 집에서 나오던 밤에도 그를 강하게 충동질한 것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광대 놀이의 음악 소리인 것이다.

「아담의 후예」에서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 가는 노인의 성격을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인물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안영감의 성격형상화에서는 현실적 의미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노인 성격형상화를 정리한다면 젊은 세대의 무기력을 비판하고 노익장의 성격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우선생」과 「영월영감」, 몰락하는 애수를 간직한 성격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복덕방」, 죽음에 직면한 노인의 심리를 묘사한 것으로 「어둠」, 비현실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아담의 후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몰락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겠다. 물론 「어둠」의 경우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죽음의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공통성이 조금 약하다고 하겠다.

3. 순박한 인물의 창조

여기에는 「달밤」, 「색시」, 「孫巨富」가 해당된다.

「달밤」은 황수건이란 ‘못난이’의 성격이 ‘나’를 통해 형상화된 작품이다. 별다른 사건은 없으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도 긴밀하지는 않다. 작은 사건들 모두 황수건의 성격을 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선 인물의 성격 형상화의 주요한 방법인 외양 묘사를 살펴 보자.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는 두드러지는 것이 뽀뽀 짙은 머리
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끝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
리다.⁴⁴⁾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여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
랴다.⁴⁵⁾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⁴⁶⁾

이태준은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외양 묘사는 그 특징만을 따서 쓰
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황수건의 성격을 큰 머리, 큰 눈과 입,
그리고 신체적인 불균형이란 특징을 잡아서 표현하고 있다.

명명법에서도, 우스꽝스러운 인물에다가 유머러스한 이름을 붙여줌으
로써 성격형상화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자기 이름은 황가인 데다가 목숨수 자 하고 세울건 자로 황수건이가 때문
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수
건하면, 다 자진줄 알리라고(...)⁴⁷⁾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
랑수건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⁴⁸⁾

다음은 공간적인 분위기를 성격 형상화에 연관시킨 것을 보자.

그는 말 몇마디 사피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
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끌이
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44) 위의 책, p. 233.

45) 위의 책, p. 234.

46) 위의 책, p. 233.

47) 위의 책, p. 235.

48) 위의 책, p. 237.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으리야 없겠지만 대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흙이 시골에서 잘 눈에 띄인다. 그리고 또 흙이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지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애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돌아 주는 것이다.⁴⁹⁾

성북동 시골로 이사해서 자연 풍광보다는 황수건이란 사람을 통해 시골이란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아니한 시골의 자연과 못난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시골의 인심을 한 인물 속에 형상화시킨 것이 황수건이란 인물이다. 공간적 분위기까지 효과적으로 인물의 성격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이태준의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말갈지 않은 말이나 그의 말을 잘 받아 준다. 그러면 황수건은 신명이 나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것이 많다. 황수건에게도 소원이 있다. 역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소박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 그가 성북동 지역의 보조배달에서 원배달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성북동이 정식으로 한 구역이 되어 자기가 원배달이 될 것이라고 기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원배달이 되고 그는 보조배달마저 떨어지고 만다. 삼산학교의 급사로 있을 때의 우스운 일화들, 일인 장학사에게 계속 같은 말을 지껓는다든가, 색시가 도망갔을까 봐 일찍 일찍 종을 쳤다든가 하는 것도 그의 성격형상화를 위한 부분이다. 한 참 뒤에 그는 다시 나타나 역시 나를 즐겁게 해 주는 여러 이야기를 한 뒤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3원을 준다. 그러나 장마로 장사는 망하고 그의 색시까지 동서가 못 살게 해서 도망을 가버린다. 어느 날은 포도를 가져왔으나 그냥 가져온 것이어서 ‘나’가

49) 위의 책, p.232.

돈을 물어 주기도 한다. ‘나’가 시내에 갔다가 돌아 오는 어느 달밤에 황수건이 전에 없던 담배를 껍껍 빨면서 노래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며 달탄 쳐다보며 지나간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라는 마지막의 달밤 장면도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가 인물의 성격과 어우러져 감동을 주는 좋은 부분이다.

황수건의 성격이 공간적 배경, 인물의 특징적 외양 묘사, 대화, 행동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실제로 한 인물을 만나 보는 듯한 실감과 현실성을 준다. 시골의 천진한 자연과 달빛은 은은하고 감싸는 듯한 분위기가 황수건의 천진한 성격과 조화되면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매우 동정적이다.

나는 그와 지꺼리기가 좋았다.⁵⁰⁾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⁵¹⁾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사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⁵²⁾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애써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⁵³⁾

황수건과 같은 인물은 세상의 상식과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참신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이태준은

50) 위의 책, p. 235.

51) 위의 책, p. 236.

52) 위의 책, p. 237.

53) 위의 책, p. 242.

그런 신선한 상상력의 인물, 세상의 야박함에 물들지 않은 거대한 비실 제적인 인물들(「불우선생」부분 참조) 그리워 하여 이런 성격을 창조하였을 것이다.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성은 거의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시대의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진 시골 성북동의 제한된 공간에서 조금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 조금은 모자라나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인물을 창조하였다. 오직 성격형상화 그 자체에만 빠져 들어 간 느낌이다. 이는 한편으로 성격형상화의 수준에서는 매우 뛰어난 경지를 보이는 것이나 사회적인 작가의식의 면에서는 후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위험부담이 큰 시대적 상황을 문제삼기보다 자신이 창조한 허구적 인물과 정신적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후의 「석양」과 통하는 심리이다.

「색시」는 ‘나’의 집에 식모로 와 있다가 돌아 간, 색시라 불리던 젊은 여인의 꺼리낌 없는 그러나 악의 없는 순박한 성격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색시는 시어머니의 이간질로 남편과 헤어져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이나 조금도 소침한 기색이 없다. 우선 외양 묘사에서부터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일어서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키와 허우대가 안사람 치고는 엄청나게 우람스러웠다.⁵⁴⁾

남자같은 몸집에 성격도 남자처럼 활달하고 팔팔하여, 웃기를 잘 하였다. 행동은 조심성이 없고 선머슴 같았다. 무엇이든지 가만히 놓는 일이 없어 세수대야 같은 것도 뺏뺏이 선 채 내던지기가 일쑤였다. 또 아까운 게 없이 물건을 헤뜨게 썼다. 나중에는 주인 집안 살림까지 마음대로 처리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도 조용할 때마다 시집갈 궁리를 하여 화장품을 사 모으고 살림살이도 우선 전기 다리미부터 사 놓는다. 캡을 쓰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지나가는 청년을 마음에 두기도

54) 위의 책, p. 269.

하고, 은행 급사로 잇는 자기의 전 남편에게 자기가 좋은 데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보는 아이까지 두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주인인 '나'의 집 아이와 아이 보는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다가 건너편 집에 전문학교 학생 두엇이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마주 보니까 무섭고 건너다 보는 것이되 이 쪽의 우리 집 색시는 첫번부터 그들에게 과민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분 세수를 하고 툼툼이 무색 옷을 내어 입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 올 시간쯤 되면 으레 머리를 고쳐 빗고 그리고는 그들이 눈에 띄이면 무슨 일이던지 하다 말고 내어 던지었다. 마당을 쓸다 그들이 보이면 비를 놓아 버리었고 물을 길러 가다 그들이 보이면 길 바닥에 빠깨스를 놓고 와서는 아이 보는 아이더러 아이는 자기가 안을 터이니 대신 가서 물을 길어 오라 하였다.⁵⁵⁾

이 색시의 유일한 희망은 일요일마다 나타나는 두 여학생으로 하여 끝나게 된다.

건넌 마당에서 그 여학생들의 웃음 소리가 건너 올 때마다 색시는 자기가 잘 웃던 것은 잊어 버린 듯,

“정칠 년, 허파 줄이 끊어졌나, 정칠 년들……”하였다.⁵⁶⁾

결국 색시는 이 냉정한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공일이 오기 전에 그의 집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인 전기 다리미를 싸서 이고 저의 집으로 가버린다.

색시의 남자같은 팔팔한 성격과 어딘지 모자란 듯하지만 악의 없고 순박한 성격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 잘 형상화되고 있다.

이 인물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는 가끔 밋살스러움을 갖기도 하지만 곧 동정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55) 위의 책, p. 276.

그 뒤 우리는 색시의 소식을 모른다. 어디 가서든지 자리잡고 살게 되면 잊지 않고 편지하겠노라고 번지까지 적어 놓고 가더니 벌써 만 년이 되어도 소식 없이 없다. 어서 그 전기 대리미에 녹이 쓸기 전에, 그 캡을 때뚜름히 쓸 줄 알고 ‘하모니까’도 빼에쓰를 넣어 볼 줄 아는 그런 신랑을 만나야 할 터인데
.....⁵⁷⁾

성격 형상화면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앞의 「달밤」과 거의 같은 작품이 「孫巨富」이다.

「孫巨富」(1935. 11)도 ‘나’라는 인물을 통해 손거부의 우직한 성격이 형상화되고 있다. 우선 「달밤」의 황수건처럼 이름에서부터 유머와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네, 호주라구 쓰시구, 그 밑에단 손거부라구 쓰시는데, 손나라 손 자 클거 부자 부 그렇습죠.”

“이름이 아주 배부른 이름이오그려.”

“그래두 배가 고프 때가 많아 걱정이랍니다.”

해서 우리는 같이 웃었다.⁵⁸⁾

손거부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대성(大成)이, 복성(福成)이, 녹성(祿成)이로 그들의 실제 처지와 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언어적 아이러니의 효과를 주고 있다.

외양 묘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외양 묘사는 손거부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까지 알려 주는 효과가 있다.

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열 살쯤 되어 보이고 하나는 대여섯 살 때 보이는데, 눈썹이 적고 귀리눈이요, 입만 미어기처럼 넓적한 것이 허죽대는 것서건 똑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었다.⁵⁹⁾

56) 위의 책, p. 277.

57) 위의 책, p. 277.

58) 위의 책, p. 281.

59) 위의 책, p. 280.

그는 끝이 커서 그런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 그런지 떠들썩하게 엮혀지는 내 소프트웨어 쓰고 기운이 나서 나갔다.⁶⁰⁾

황수건이와 마찬가지로 큰 머리, 큰 눈(?), 큰 입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손거부의 행동을 통한 성격묘사를 살펴 보자.

천성이 터벌터벌하여 말참배하기를 좋아하고 아무한테나 허튼 소리를 잘 걸다가 때로는 당치않은 구설도 듣는 수가 더러 있지만, 아뭏든지 떠들썩하는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손서방이다.⁶¹⁾

손거부(손서방)은 일정한 직업은 없으나 혼인이나 초상, 집터 뉘는 데, 우물 파는 데, 심지어는 뉘집 아이가 넘어져 다친 데까지 나서서 참례하기를 좋아하여 성북동에서는 꽤 인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한 번도 술 취해서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 사람과 떠들다가도 안면이 있는 듯한 사람만 지나가면 으레 뉘 돌아서 깍듯이 인사하는 것도 그의 특성이다. 그가 ‘나’와 인연을 맺기는 “사육배판이나 되리만한 널판대기 하나를 들고” 문패를 써 달라고 찾아 오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선 문패로 쓸 나무판이 큰 것부터 남다른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써 달라는 내용도 손서방다운 우직함이 있다.

“아놀시다. 거 따루따루 성가십쥬. 모두 한데 쓰시고, 아주 남자가 몇이요, 여자가 몇이요, 장자엔 누구요, 차자엔 누구라구 다 써주십쇼. 그래야 만약에 순포박서 호구 조살 와두 여러 말이 없이 간단 말썬야요.”⁶²⁾

남 보기에는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손서방의 성격이지만 역시 세상의 이해타산과는 거리가 있는 순박하고 진지한 모습이라 할

60) 위의 책, p. 285.

61) 위의 책, p. 278.

62) 위의 책, p. 280.

수 있다.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득이 생기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저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모두 주고자 하는 인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달 XX날이 청결입니다.”, “이달 XX 날 요 아래 XX학교서 우두 넣는답니다.” 등의 공지 사항은 물론, “저 건너 살구나무 배기터가 매평 팔 원씩에 팔렸답니다.” 혹은 “요넘어 논꼴서 지난밤에 도적을 텅겼어요. 소문 들으셨어요?”라는 등의 동네 소식까지 일부러 찾아와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성애도 있는 인물이다. 자기처럼 머리가 약간 모자라는 아이들이지마는 손서방은 아이들을 매우 귀여워한다.

그는 코를 벌렁거리며 그리 귀엽게도 못생긴 저희 작은 작은아들의 불기 짝을 투덕투덕거리었다.⁶³⁾

또 아들이 기특한 듯 두 녀석의 노랗다 못해 빨간 머리를 한 손으로 하나씩 쓰다듬었다.⁶⁴⁾

“그럼입쇼. 내가 뭐 철량이 남과 같이 있음니까, 일가친척이 있길 험니까, 그저 이녀석들을 기르는 재미죠.”⁶⁵⁾

‘나’를 찾아 와 큰 아들의 학교 문제를 의논하여 학교에 넣은 후로는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손가락을 다쳐 가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여 자식 뒷바라지를 한다. 얼마 뒤 ‘나’는 아침 산보길에서 손서방이 저의 큰 아들을 “학교엔 안 가고 진고개로만 싸대긴다고” 꾸짖고 때리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그 아이가 너무 저능아라서 학교에서 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며칠 뒤 손서방은 아이를 또 하나 낳았다고 이름을 짓고 문패를 고치러 온다. 그러면서 큰 아들의 학교 얘기를 한다. 학교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두 다니겠다는 걸 막벌이를 해 먹는

63) 위의 책, p.280.

64) 위의 책, p.282.

65) 위의 책, p.283.

게 마음 편하다고 하여 자기가 그만 두게 하였다고, ‘나’가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한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자 하는 부성애의 가혹함이 보인다. 그러곤 모레가 기 다는 날이라고 알려 주며 나간다.

악의와 사심 없이 남의 일에 참례하길 좋아하고 인정과 부성애가 풍부하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물의 성격을 명명법에서의 아이러니와 외양 묘사, 행동 등을 통하여 잘 형상화하였다.

이 인물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달밤」보다는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시종 인물에 대한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보이고 있다. 황수건을 창조한 심리나 손거부를 창조한 심리는 같은 것이다. 시대적 심각성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물을 치밀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치열한 시대상황의 중앙에서 물러 나옴과 동시에 하찮은 인물을 오로지 작가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유머와 페이스”를 창조함으로써 문학적 도락에 빠져 보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딜레탕티즘”의 작가라고⁶⁶⁾ 한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그의 작품 중 성격형상화에 치중한 작품들을 순박하고 자유분방한 인물, 노익장의 노인과 무기력한 노인들, 사회적 자각을 갖는 여성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아예 갖지 못하거나 가졌더라도 능력을 상실한 인물들이다. 밖으로의 자각적 지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발전과 성장을 멈춘 듯한 그 나름대로 완결되어 버린 인물들이다. 남의 눈을 끌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서 쓸모를 가지지도 못한 인물을 오로지 작가의 세심한 성격형상화를 통하여 그에게도 눈 돌리고 마음 줄 만한 것이 있음이 드러나

6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p.199-200 참조.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 보기에는 한낱 破器片血에 불과하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산하요 莊嚴한 伽藍일 수”⁶⁷⁾ 있다고 말하는 정신세계와 통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이러한 세계를 통하여 조선적인 것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려 했으며 그것은 열악한 시대상황을 이겨 내는 방법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의 사회적 자각을 갖게 되는 여성상을 형상화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성격의 발전에 관념성과 비약성이 드러나, 그의 작가의식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의 세계관적 토대가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심정적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자인한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67) 이태준, 「古翫品과 生活」, 金允植, 『韓國近代文學思想批判』, 일지사, 1978, 再引用.

參 考 文 獻

- 『李泰俊文學全集』, 제1권~18권.
 『개벽』, 1934, 12, 1935. 2.
 『동아춘추』, 1963. 4.
 『文章』, 1939, 2, 1940. 11.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백민』, 1946. 10.
 『三千里』, 1932. 4.
 『신동아』, 1933. 9.
 강제언, 『일제하 40년사』, 풀빛, 1984.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金允植, 『韓國近代文學思想批判』, 일지사, 1978.
 김 현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민충환, 『李泰俊 研究』, 깊은샘, 1988.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출판부, 1973.